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19, Vol. 25, No. 4, 279~303.
<http://dx.doi.org/10.20406/kjcs.2019.11.25.4.279>

한국인 대학생의 외국인 유학생과의 접촉이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와 현실갈등인식의 매개효과*

최 가 희[†]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과의 접촉이 한국인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삶의 만족도와 현실갈등인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인 대학생의 외국인 유학생과의 접촉은 접촉의 수, 접촉의 빈도, 접촉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지역 다양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한국인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일상의 다문화 역량 척도를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384명의 대학생이 접촉, 일상의 다문화 역량 척도, 삶의 만족도 척도, 현실갈등인식 등을 포함한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접촉 수는 문화적 자기효능감과 문화적 지식에, 접촉 다양성은 문화적 개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삶의 만족도는 문화적 공감을 제외한 다문화 역량의 세 개 하위 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실갈등인식은 다문화 역량의 문화적 지식을 제외한 다문화 역량의 세 개 하위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와 현실갈등인식을 각각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접촉과 다문화 역량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도만이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점점 그 구성원이 다양화되고 있는 대학 문화 내에서 한국인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외국인 유학생, 접촉, 다문화 역량, 삶의 만족도, 현실갈등인식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1563).

† 교신저자 : 최가희,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E-mail : choigh@kmu.ac.kr

구성원의 다양화로 인하여 최근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고미숙, 2017), 이러한 현상은 대학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 자료(한국교육개발원, 2018)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대학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142,205명으로, 2006년 32,557명에 비해 그 수가 10여 년간 4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지역은 아시아 지역이 90.4%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유럽 4%, 북아메리카 2.7%, 아프리카 1.9%, 남아메리카 0.6%, 오세아니아 0.3%로 한국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지역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시스템에의 적응 및 한국인 대학생들과의 관계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한국인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함께 생활하는 외국인 유학생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고 다양한 문화로부터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이 현실이다(박소진, 2013; 전재은, 2013).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학생이나 교수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수아, 김태호, 2011; 임춘희, 2009; 하정희, 2008). 또한, 박혜숙(2016)은 국내 중국인 유학생이 지각하는 한국인 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이 한국인 대학생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다문화 수용성 수준보다 낮다고 보고하여,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한국인 대학생의 태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최근 다문화 연구는 소수 구성원의 정신건

강 및 적응 등의 주제 뿐 아니라 다수 구성원의 소수 구성원에 대한 태도, 다수 구성원의 문화적 적응 및 성장 또한 간과해서는 안된다 고 강조하고 있다(정명희, 박외병, 2014; 정진경, 양계민, 2005). 대학 내 다수집단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한국인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을 향상시키는 요인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나 아직 정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인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다문화 역량

다문화 역량이란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편견을 인식하고, 상이한 세계관을 가치롭게 여기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적절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Mio, Barker-Hackett, & Tumambing, 2012). Sue, Arredondo와 McDavis (1992)는 미국 내 상담자들의 다문화 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전문가들은 자신의 가치관, 행동, 선입견, 고정관념, 한계 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자신과 문화 배경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그러한 이해와 인식에 기반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사하게, Howard-Hamilton, Cuyjet와 Cooper(2011)는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 증진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대학생들이 다른 문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다른 문화를 가진 구성원들과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Howard-Hamilton 등(201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의 핵심영역으로 1) 문화와 관련된 지식, 2) 자기반영, 조망수용, 타문화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능력 등

문화 관련 기술, 3) 다양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 등을 강조하였다. 다문화 교육을 통해 대학생들은 자신의 소속 문화와 타인의 문화 모두에 대해 보다 개방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가치관과 편견에 대해 인식할 뿐 아니라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게 된다. Howard-Hamilton 등(2011)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문화 관련 학습을 통해 성장을 경험하고 이러한 성장 경험을 중요시하는 태도 또한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주요 효과라고 제시하였다.

한편, Ridley와 Lingle(1996)은 문화적 공감 모델을 제시하며, 다문화 역량의 범위를 보다 확장하였다. 문화적 공감 모델은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의 세 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된다. 문화적 공감의 인지적 측면은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타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관점에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정서적 측면은 타문화의 관점에서 그들의 감정에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의사소통 측면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인지적 공감 및 공감적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 때 표현은 언어적, 행동적 측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Wang 등(2003)은 문화적 공감모델을 반영하여 The Scale of Ethnocultural Empathy(SEE)를 개발하였으며, SEE는 공감적 느낌 및 표현, 공감적 조망수용, 문화 차이에 대한 수용, 공감적 인식 등의 네 가지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Mallinckrodt 등(2014)은 미국 내 다문화 교육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교육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합의된 도구가 없다

고 문제를 제기하며 Everyday Multicultural Competencies/Revised Scale of Ethnocultural Empathy(EMC/RSEE; 일상의 다문화 역량 척도)를 개발하였다. 일상의 다문화 역량 척도는 SEE의 문항과 더불어 대학 행정관계자들과 교수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집단을 통해 도출한 문항을 합쳐 분석된 48문항의 질문지이다. 일상의 다문화 역량 척도는 문화적 개방성과 배우고자 하는 바람, 분노 및 문화적 지배성, 불안 및 낮은 다문화 효능감, 공감적 조망수용, 인종차별 및 편견의 인식, 공감적인 느낌 및 동맹으로 활동하기 등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상의 다문화 역량 척도는 다문화 역량의 핵심요소인 지식, 기술, 태도 및 문화적 공감모델의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 측면을 적절하게 반영함으로써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을 더욱 정교하게 측정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상의 다문화 역량 척도를 번안하고 요인구조를 살펴본 후 모델검증에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최근에 다문화와 관련되어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다문화 교육이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김정덕, 이은경, 2014; 박순희, 김선애, 2012; 이수정, 2014; 정명희, 박외병, 2014; 채명정, 김진일, 이진희, 2015; 학은희, 박재순, 2013). 이들 연구들이 제시한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인식 증진, 소수집단의 언어, 문화, 가치관 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소수 집단원과의 공존의 중요성 인식을 그 목표로 둔다(김미진, 정옥분, 2010). 그러나 소수집단은 상호이질적인 다양성이 그 내부에 함의되어 있는 개념이므로, 각각의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류승아(2017)는 편견, 접촉 수준 및 위협감의 관계가 탈북자, 다문화 가정, 성소수자, 신체 장애인, 정신 장애인에 따라 상이함을 발견하였고, 각 소수집단에 따른 상이한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대학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대학생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가지는 인식 및 태도를 알아본 연구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김성훈, 이경화, 2017; 이병식, 전민경, 2015; 임희진, 김제희, 정소현, 정하영, 김현성, 2015; 전재은,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수집단 중에서도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한국인 대학생의 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한국인 대학생들의 다문화 역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인 대학생의 외국인 유학생과의 접촉, 삶의 만족도, 현실갈등인식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을 위한 개입방법을 모색하고 한국인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 증진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접촉의 영향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한국인 대학생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소수이므로, 보다 포괄적으로 소수집단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당수의 연구는 접촉이론을 보고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김금미, 안상수, 2014; 김성훈, 이경화, 2017;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류승아, 2017; 박순희, 유지형, 2017; 양계민, 이우영, 2016; Pettigrew & Tropp, 2006). 접촉이론은 다

른 집단의 구성원과 접촉 할수록 그 집단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된다는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Allport, 1954).

인종 간 접촉이 차별적인 태도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로 미국과 호주의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Aaronson, Akert, & Sommers, 2018; Quito, 2018). 우리나라에서도 접촉이론과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구가 사회심리학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주로 탈북자, 성소수자, 외국인, 이민자 등 소수집단과의 접촉이 그들에 대한 긍정적 정서(김금미, 안상수, 2014; 이수정, 양계민, 2013), 편견 감소(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남순현, 2012; 류승아, 2017), 글로벌 역량(김성훈, 이경화, 2017)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접촉이 항상 집단 간 편견을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Saguy, Tausch, Dovidio, Pratto, 그리고 Singh(2011)은 접촉이 집단 간 편견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2011) 또한 피상적인 접촉은 오히려 접촉 전에 가지고 있던 소수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제시하였다.

접촉의 영향에 대한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접촉이 편견감소로 이어지기 위한 세 가지 조건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Allport(1954)는 접촉하는 두 집단이 동등한 지위에 있고,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며, 접촉이 법적 혹은 사회적 규범상 지지될 때 효과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더해 Sherif, Harvey, White, Hood와 Sherif(1961)는 상이한 문화를 가진 타집단의 다양한 구성원과 상호작용할 때 접촉이 편견감소에 효과적임을 주장하였다. 이는 접촉이 얼마나 다양적으로 이루어졌느냐가 다른 집단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개방적인 교류를 가능케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현재까지 접촉 관련 연구들은 접촉의 유무, 접촉의 수 및 빈도가 타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다양한 대상과 접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포함한 연구는 없었다. 외국인 유학생은 그 국적 및 문화적 배경이 상호이질적이라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하나의 국적을 가진 혹은 유사한 문화적 유산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 여러 명과 상호작용하는 것과 다양한 국적 및 문화적 유산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과의 상호작용은 그 효과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접촉 측정 시 접촉 수와 빈도 이외에도 접촉 다양성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삶의 만족도의 영향

상당수의 연구는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소수집단에 대해서도 편향에 치우치기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을 보다 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제시하고 있다(구재선, 서은국, 2016; Veenhoven, 1988; Waugh & Fredrickson, 2006). 관련한 국내의 연구에서, 양계민(2015)은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 집단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삶의 만족도를 제시하였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삶에서 경험하는 만족감이 클수록 다른 다문화 집단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유사하게, 한국인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선아와 유계숙(2018)의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낮은 남

학생의 여성혐오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구재선, 서은국, 2016; 이택호, 이석영, 한윤선, 2016)에서는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문화 차이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러한 태도가 시간이 흘러도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정리하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도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 유지할 수 있는 심리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삶의 만족도가 소수 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한국인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에서도 반복될 것인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현실갈등인식의 영향

현실갈등인식은 사회심리학에서 분쟁과 편견을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 중 하나로, 제한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결과 나타나는 집단 간 적개심,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정의된다(Sherif, 1966). 즉, 가치 있는 자원이 모든 사람에게 공유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집단이 더 많은 자원을 가지게 되는 경우, 충분한 자원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 집단은 경쟁 심과 동시에 다른 집단에 대한 적개심과 부정적 평가를 하게 되고, 이는 타집단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는 경쟁 상황 및 현실적 갈등인식이 증가할수록 편견이 높아지며, 상대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양계민, 2009; 양계민, 이우영, 2016; Olzak &

Nagel, 1986).

현실갈등인식은 한국인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사이에서도 발생 가능한 주제이다. 국내 대학의 국제화가 이루어지며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급증하였으나, 한국인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사이에 활발한 상호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전재은, 2013), 입학기준이나 장학금 등에 대한 정책차이로 인해 한국인 대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김성훈, 이경화, 2017).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 대학생들은 제한된 자원을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빼앗기고 있다고 지각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적개심 및 경쟁심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김성훈과 이경화(2017)는 국내 대학생들이 현실적 갈등을 덜 경험할수록 높은 글로벌 역량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한국인 대학생들이 제한된 자원을 외국인 유학생과 공유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태도, 공감 및 상호작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대학 내 국제화에 따른 현실갈등인식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대학의 국제화에 따른 명암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급증으로 한국인 대학생들이 역차별 경험 및 갈등을 경험 하며 이것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태도 및 편견,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대학생이 경험하는 현실갈등인식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접촉과 삶의 만족도 및 현실갈등인식

지금까지 접촉, 삶의 만족도, 현실갈등인식이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

았다. 그렇다면 접촉과 삶의 만족도, 현실갈등인식의 관계는 어떠할까? 우선 접촉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궁정심리학의 관점에서 간접적으로 설명해볼 수 있다. Maddux, Leung, Chiu, 그리고 Galinsky(2009)는 다양한 문화 경험의 창조성 증진과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Cross(2003) 또한 다문화는 풀어야 할 문제 혹은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차용해야 할 자원, 특히 정신건강에 중요한 자원이며, 다양한 문화적 경험이 정적 정서, 낙관성, 삶에서 경험하는 자기효능감 등과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집단과의 접촉은 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등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는 소수집단의 구성원이 다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분위기에 노출되었을 때 삶의 만족도 및 정신건강이 증진됨을 보고한 바 있다(Bagci, Rutland, Kumashiro, Smith, & Blumberg, 2014; Bagci, Turnuklu, & Bekmezci, 2018; Le, Lai, & Wallen, 2009; Mendoza-Denton & Page-Gould, 2008). 문화적 접촉이 소수 집단원의 삶에 대한 궁정적인 태도 및 정신건강 증진과 관계된다는 연구는 다수 수행된 반면, 다양한 문화적 경험 및 접촉이 다수 집단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학생들은 사회적 유대감을 많이 경험할수록 높은 주관적 안녕감을 보고한다는 결과(이수진, 2009)를 고려하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타집단과의 접촉은 사회연결망의 확장으로 기능하여 주류집단의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접촉이론은 집단 간 접촉이

대체로 상대 집단에 대한 편견과 위협감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반면, 경쟁상황에서 접촉이 갈등을 감소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Dixon, Durrheim, & Tredoux, 2005, Forbes, 1997, Hewstone et al., 2014). 관련하여 김성훈과 이경화(2017)는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간의 접촉이 많아질수록 외국인 유학생을 경쟁의 대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낮은 글로벌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Putman(2007)은 타집단과의 반복적인 접촉은 해당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경감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류승아(2017)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이 다문화집단, 성소수자, 정신장애인 집단과 접촉하였을 때, 해당 집단에 대해 경험하는 위협감이 줄어들고, 이는 편견의 완화로 이루어진다고 제시하였다. 이렇듯 선행연구의 결과는 현재까지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다문화 연구에서 다수 집단의 문화적 성숙도를 살펴보는 것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학 내 다수에 해당하는 한국인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에 대해 정밀하게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현재까지 접촉과 삶의 만족도, 현실갈등인식, 다문화 역량의 관계를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대학생의 외국인 유학생과의 접촉과 다문화 역량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삶의 만족도와 현실갈등인식이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인 대학생의 외국인 유학생과의 접촉, 삶의 만족도, 현실갈등인식은 다문화 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한국인 대학생의 외국인 유학생과의 접촉은 삶의 만족도와 현실갈등인식을 매개로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방법

연구대상

대구 소재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384명의 대학생들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이 중 설문에 성실히 응답하지 않았거나 외국인 유학생이 응답한 경우 등은 제외하였고, 총 314명의 설문을 최종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의 평균연령은 21.42세($SD=2.08$) 이었다. 남녀 비율은 남학생 120명(38.3%), 여학생 193명(6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방문경험으로는 있다는 응답이 228명(72.6%), 없다는 응답이 86명(27.4%)인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방문의 유형으로는 여행 211명, 기타 25명(봉사활동, 교환학생, 친지방문, 워킹홀리데이 등), 어학연수 23명, 유학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외국인 유학생과의 접촉

외국인 유학생과의 접촉은 외국인 유학생 친구의 수 및 만남의 빈도, 외국인 유학생

친구의 출신지역 다양성 등 세 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친구의 수 및 만남의 빈도는 Turner, Hewstone, Voci와 Vonofakou(2008)가 아시아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백인 대학생의 접촉 수 및 빈도를 측정한 문항과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2011)이 이주민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사용한 문항들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친구의 수(1=0명, 2=1명, 3=2-4명, 4=5-10명, 5=10명 이상)과 외국인 유학생 친구와의 접촉빈도(1=전혀, 2=때때로, 3=가끔, 4=자주, 5=항상)으로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국인 유학생과의 접촉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유학생 친구 수의 평균은 1.75였으며, 연구 대상자 중 196명은 외국인 유학생 친구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36명은 1명의 친구, 55명은 2-4명의 친구, 14명은 5-10명의 친구, 12명은 10명 이상의 친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접촉 빈도의 평균은 1.34로, 245명이 전혀, 42명이 때때로, 17명이 가끔, 7명이 자주, 2명이 항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접촉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친구의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외국인 친구의 출신 지역은 어디인지 (1=아시아, 2=아프리카, 3=북아메리카, 4=남아메리카, 5=유럽, 6=오스트레일리아, 7=남극)질문하고 출신대륙의 수를 합산하여 평가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아시아계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98명, 아프리카 7명, 북아메리카 26명, 남아메리카 11명, 유럽 43명, 호주 11명, 남극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대륙의 수를 합산한 결과, 접촉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친구의 출신 대륙이 1개인 경우는 93명, 2개인 경우 19명, 3개인 경우 9명, 4개인 경우 4명, 5개인 경우 2명, 6개인 경우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감

삶의 만족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Diener, Emmons, Laren, 및 Griffin(1984)이 개발한 삶의 만족감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SWLS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 만족 정도를 평가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재선과 서은국 (2016)의 연구에서 SWLS의 내적합치도는 .8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문항들의 내적합치도는 .87이었다.

현실적 갈등

한국대학생들이 외국인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양계민(2010, 2015)이 각각 한국 성인들이 이주민 집단에 대해 가지는 태도,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 집단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문항들 중 대학생의 상황에 적합한 네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아질수록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관심은 줄어든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증가할수록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지원은 줄어든다’, ‘외국인 유학생보다는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 때문에 한국 대학생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었다고 느낀다’ 등이 있다. 높은 점수는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갈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자의 현실갈등 평균 점수는 2.57(범위 1-4.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배경 이주민에 대한 양계민(2015)의 연구에서 문항들의 내적합치도는 .78인 것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문항들의

내적합치도는 .69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역량

다문화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Mallinckrodt 등(2014)이 개발한 일상의 다문화 역량 척도(Everyday Multicultural Competencies/Revised Ethnocultural Empathy Scale; EMC/REMS)를 한국 어로 번안하였다. 일상의 다문화 역량 척도는 미국 대학생들의 다문화 역량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문화적 개방성과 배우고자 하는 바람, 분노 및 문화적 지배성, 불안 및 낮은 다문화 효능감, 공감적 조망수용, 인종차별 및 편견의 인식, 공감적인 느낌 및 동맹으로 활동하기 등의 6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6개의 하위요인 중 미국사회에 특화되어 한국의 상황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문화적 지배성 및 인종차별 및 편견의 인식에 해당하는 문항들(예, 나는 소수민족이 왜 자신의 TV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미국 사회에서 백인들은 다른 인종에 비해 여전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민자의 유입으로 백인이 곧 소수민족이 될까봐 걱정된다)를 제외한 30문항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번안을 위하여 먼저 본 연구자가 일상의 다문화 역량 척도를 번역한 후,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미국의 대학에서 각각 상담심리학, 언어병리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2명의 전문가에게 번역된 문장을 검토받았다. 2명 전문가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문항을 수정한 후,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하며 번역을 전공한 전문가 1인에게 역번역을 의뢰하였다. 번역과 역번역한 척도를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기업에서 통역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1인에게 번역과 역번역의 내용의 일치도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피드백 결과 내용이 상이한 문항

에 대해서는 번역과 역번역의 과정을 반복하여 본 연구에 사용될 문장들을 확정하였다.

다음으로 번안된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관련하여, 우선 KMO와 Barlett의 구형성 검증을 살펴보았다. KMO측도는 .880, 구형성 검정 지표는 $\chi^2(df=435)=3247.252(p=.000)$ 으로 나타나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축요인추출과 베리黠스 사각회전 방법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유값이 1이상인 요인이 7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표별 설명력 그레프(scree plot)과 누적분산비율을 고려해 요인의 수를 4개로 결정하였고, 4개로 정했을 때 이에 속하는 문항은 총 23문항이었다. 구체적으로 요인 1은 문화적 개방성 및 타문화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것이므로 ‘문화적 개방성’으로 명명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문항은 10개였다. 요인 2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경험하는 편안함 및 우정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문화적 자기효능감’이라 명명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문항은 5개였다. 요인 3은 타문화에 대한 가지고 있는 지식 및 차별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와 지식에 대한 것이므로 ‘문화적 지식’이라 명명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문항은 4개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4는 외국인 학생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었으므로 ‘문화적 공감’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문항은 4개였다.

이어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4개의 요인에 대해 M-Plus 프로그램 버전 8.3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요인 모형은 $\chi^2(df=224)=565.445(p=.000)$, CFI=.860, TLI=.842, RMSEA=.068, SRMR=.058

인 것으로 나타났다. Hu와 Bentler(1999)에 의하면 CFI, TLI가 .90이상이면 모델이 적합하다고 보았으며, 홍세희(2000)는 RMSEA가 .05이하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인 경우 괜찮은 적합도, .10보다 작으면 보통 적합도, .10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또한 Hu와 Bentler(1999)는 SRMR이 0.08 이하면 좋은 적합도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였을 때, 4요인 모델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4 요인 모델의 적합도 수정지수를 참고하였을 때, 문항22와 30, 문항 4와 24의 측정오차간의 상관을 추정할 경우 χ^2 의 값이 감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측정 오차 간 상관을 추정하여 모델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hi^2(df=222)=505.793(p=.000)$, CFI=.887, TLI=.860, RMSEA=.064(90% C. I. 0.056-0.07), SRMR=.055인 것으로 나타났다. CFI와 TLI가 적합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나머지 적합도 지수인 RMSEA와 SRMR이 수용가능한 수준이며, 다문화 역량의 이론적 배경과 특성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으므로 모델 검증은 총 23개 문항, 4요인에서 마치게 되었다. 문항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적 개방성 요인에 해당하는 10 문항은 원척도의 문화적 개방성 및 배우고자 하는 바람 하위요인에 해당되는 10문항과 일치했으며, 문화적 자기효능감 요인에 해당하는 5문항은 원척도의 불안 및 문화적 자기효능감 부족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7문항 중 5문항과 일치하였다. 문화적 공감에 해당하는 4 문항은 원척도 중 공감적 느낌 및 동맹으로 행동화하기에 해당하는 8문항 중 4 문항과 일치하였다. 반면, 문화적 지식은 원척도의 결과와 다소 상이한 내용이나, 다문화 역량의 핵심 영역이 다문화 인식, 지식, 기술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Sue et al., 1992),

다문화 역량의 이론적 배경에 부합하는 하위 요인이라고 판단하였다.

일상의 다문화 역량 질문지에 참여자들은 1 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6점(매우 동의 한다)의 6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였다. 문항의 내용으로는 문화적 개방성의 경우 “나는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 한국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외국인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 등이 있다. 문화적 자기효능감의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외국인 학생과 굳건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나에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나는 외국인 학생과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등이 있다. 문화적 지식의 문항내용으로는 “나는 다른 인종이나 민족집단에게 중요한 사회적/정치적 사건에 대해 잘 모른다”, “나는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등이 있다. 다문화 공감의 문항내용으로는 “나는 외국인 학생들이 자신의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때문에 불행한 일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다”, “나는 사람들이 인종 차별적인 농담을 하면,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기분이 상한다고 얘기하는 편이다” 등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타문화에 개방적이고, 타문화의 구성원과 효율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데 자신이 있으며, 타문화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고, 공감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Mallinckrodt 등 (2014)의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이 서로 상이한 구성요소를 측정하므로 총점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한 권고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4 가지 요인을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Mallinckrodt 등(2014)에서 문항들의 내적합치도는 .62-.92의

범위를 보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경우는 .62-.80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4개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는 문화적 개방성 .86, 문화적 자기효능감 .79, 타문화에 대한 지식 .62, 문화적 공감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소속 대학교 기관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 하에 실시되었다. 일상의 다문화 역량 척도 번안을 위해 4인의 전문가와 함께 번역과 역번역 과정을 반복한 후 문항을 확정하였고, 대학생들에게 외국인 유학생과의 접촉, 삶의 만족감, 현실적 갈등, 다문화 역량 척도를 포함한 질문지에 응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M-Plus 프로그램 버전 8.3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접촉, 삶의 만족감과 현실갈등인식이 일상의

다문화 역량의 4개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와 현실갈등인식이 접촉과 다문화 역량 사이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간접효과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10,000개의 표본이 모수추정에 사용되었다. Shrout와 Bolger(2002)는 안정된 모수추정치를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5%의 신뢰구간에서 유의도를 살펴보았다.

결과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주요변인들 간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을 분석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친

표 1. 주요 변인 간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N=314$)

	1	2	3	4	5	6	7	8	9
1. 접촉 수	1								
2. 접촉 빈도	.566**	1							
3. 접촉 다양성	.827**	.539**	1						
4. 삶의 만족도	.102	.013	.126*	1					
5. 현실갈등인식	-.082	-.083	-.073	-.123*	1				
6. 문화적 개방성	.278**	.133*	.310**	.185**	-.196**	1			
7. 문화적 자기효능감	.397**	.280**	.336**	.300**	-.219**	.433**	1		
8. 문화적 지식	.281**	.128*	.262**	.258**	-.147*	.457**	.527**	1	
9. 문화적 공감	.083	.083	.102	.128*	-.239**	.457**	.180**	.274**	1
평균	1.750	1.336	.62	4.196	2.568	4.599	4.075	4.013	4.551
표준편차	1.127	.738	1.001	1.214	.605	.663	.916	.778	.748

주. * $p<.05$, ** $p<.01$.

구과의 접촉 수, 외국인 유학생 친구와 상호 작용하는 접촉 빈도, 외국인 유학생 친구들의 출신 대륙 다양성은 서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일상의 문화적 역량의 네 가지 하위요인 중 문화적 개방성, 문화적 자기효능감 및 문화적 지식은 접촉 수, 접촉 빈도, 접촉 다양성,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현실갈등인식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반면에 문화적 공감은 삶의 만족도와 현실갈등인식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접촉 수, 빈도, 다양성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일상의 다문화 역량에 대한 접촉, 삶의 만족도, 현실갈등인식의 영향

접촉, 현실갈등인식과 삶의 만족도가 일상의 다문화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상의 다문화 역량의 4개 하위 요인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투입하고, 접촉, 삶의 만족도, 현실갈등인식을 동시에 투입(enter)하여 각 변인이 다문화 역량의 4개 하위 요인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중다회귀분석 결과분석에 앞서, 검증결과가 다중공선성에 위배되는지 확인하였다. VIF는 3.382, 1.518, 3.260, 1.035, 1.023으로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Durbin-Watson의 값은 1.826-2.065로 2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잔차의 상호 독립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접촉 다양성($\beta = .241$, $p < .05$), 삶의 만족도($\beta = .130$, $p < .05$), 현실갈등인식($\beta = -.165$, $p < .01$)이 문화적 개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접촉 다양성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적 자기효능감에 있어서는, 접촉 수($\beta = .336$, $p < .001$), 삶의 만족도($\beta = .252$, $p < .001$), 현실갈등인식($\beta = -.159$, $p < .01$)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접촉 수, 삶의 만족도, 현실갈등인식 순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지식의 경우에는, 접촉 수($\beta = .548$, $p < .05$)와 삶의 만족도($\beta = .215$, $p < .00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적 공감에 있어서는 현실갈등($\beta = -.221$, $p < .001$)만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과 일상의 다문화 역량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와 현실갈등인식의 매개효과

접촉이 삶의 만족도를 통해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접촉의 수와 다양성이 일상의 다문화 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접촉 수와 접촉 다양성을 각각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일상의 다문화 역량의 각 하위요인을 독립적인 종속변인으로 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접촉 수와 일상의 다문화 역량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접촉 수와 삶의 만족도와의 경로계수는 .001(ns)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 수 → 문화적 개방성, 접촉 수 → 문화적 자기효능감, 접촉 수 → 문화적 지식, 접촉 수 → 문화적 공감의 경로계수 또한 각각 -.001(ns), -.001(ns), .000(ns), .000(ns)으로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삶의 만족도 → 문화적 개방성, 삶의 만족도

표 2. 접촉, 삶의 만족도, 현실갈등인식과 일상의 다문화 역량의 회귀분석 결과 ($N=314$)

독립변수	종속변인 : 문화적 개방성				
	B	SE	β	t	p
상수	4.649	.209		22.277	.000
접촉 수	.051	.057	.087	.897	.371
접촉 빈도	-.055	.058	-.062	-.951	.342
접촉 다양성	.159	.063	.241	2.533	.012
삶의 만족도	.071	.029	.130	2.418	.016
현실갈등인식	-.180	.058	-.165	-3.087	.002
$R^2(\text{adj.}R^2) = .148(.134), (F=10.632, p=.000)$					
독립변수	종속변인 : 문화적 자기효능감				
	B	SE	β	t	p
상수	3.673	.269		13.644	.000
접촉 수	.274	.074	.336	3.722	.000
접촉 빈도	.116	.075	.094	1.549	.122
접촉 다양성	-.035	.081	-.038	-.426	.671
삶의 만족도	.190	.038	.252	5.045	.000
현실갈등인식	-.240	.075	-.159	-3.190	.002
$R^2(\text{adj.}R^2) = .259(.246), (F=21.410, p=.000)$					
독립변수	종속변인 : 문화적 지식				
	B	SE	β	t	p
상수	3.638	.246		14.804	.000
접촉 수	.149	.067	.548	2.215	.027
접촉 빈도	-.047	.069	-.044	-.683	.495
접촉 다양성	.057	.074	.073	.771	.441
삶의 만족도	.138	.034	.215	4.000	.000
현실갈등인식	-.131	.069	-.101	-1.899	.059
$R^2(\text{adj.}R^2) = .116(.102), (F=8.050, p=.000)$					
독립변수	종속변인 : 문화적 공감				
	B	SE	β	t	p
상수	4.980	.246		20.239	.000
접촉 수	-.021	.067	-.032	-.320	.749
접촉 빈도	.040	.069	.039	.580	.562
접촉 다양성	.059	.074	.079	.800	.424
삶의 만족도	.058	.034	.094	1.674	.095
현실갈등인식	-.274	.069	-.221	-3.987	.000
$R^2(\text{adj.}R^2) = .074(.059), (F=4.883, p=.000)$					

→ 문화적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 문화적 지식, 삶의 만족도 → 문화적 공감의 경로계수는 각각 .103($p<.01$), .228($p<.001$), .165($p<.001$), .079($p<.05$)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했을 때, 접촉 수와 일상의 다문화 역량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접촉 수와 일상의 다문화 역량의 관계에서 현실갈등인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접촉 수 → 문화적 개방성, 접촉 수 → 문화적 자기효능감, 접촉 수 → 문화적 지식, 접촉 수 → 문화적 공감의 경로계수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촉 수 → 현실갈등인식계

수는 -.001(ns)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현실갈등인식 → 문화적 개방성, 현실갈등인식 → 문화적 자기효능감, 현실갈등인식 → 문화적 지식, 현실갈등인식 → 문화적 공감의 경로계수는 각각 -.219($p<.01$), -.335($p<.001$), -.189($p<.05$), -.297($p<.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접촉다양성과 다문화 역량의 관계에서 현실갈등인식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어서, 접촉 다양성이 삶의 만족도를 통하여 문화적 개방성으로 가는 경로를 분석하였다. 표 3에서 살펴보면, 접촉하고 있는 외국친구의 지역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B = .153$, $p<.05$),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문화적 개방성 또한 높았다($B = .081$,

표 3. 접촉다양성과 일상의 다문화 역량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N=314$)

경로		B	SE	t	LLCI	ULCI
접촉 다양성 → 삶의 만족도	a	.153	.064	2.400*	0.027	0.279
접촉 다양성 → 문화적 개방성	c'	.193	.031	6.155***	0.132	0.256
삶의 만족도 → 문화적 개방성	b	.081	.030	2.675**	0.020	0.138
경로		B	SE	t	LLCI	ULCI
접촉 다양성 → 삶의 만족도	a	.153	.064	2.400*	0.027	0.279
접촉 다양성 → 문화적 자기효능감	c'	.277	.045	6.187***	0.197	0.373
삶의 만족도 → 문화적 자기효능감	b	.198	.042	4.715***	0.114	0.278
경로		B	SE	t	LLCI	ULCI
접촉 다양성 → 삶의 만족도	a	.153	.064	2.400*	0.027	0.279
접촉 다양성 → 문화적 지식	c'	.181	.037	4.846***	0.108	0.256
삶의 만족도 → 문화적 지식	b	.147	.037	3.953***	0.072	0.218
경로		B	SE	t	LLCI	ULCI
접촉 다양성 → 삶의 만족도	a	.153	.064	2.400*	0.027	0.279
접촉 다양성 → 문화적 공감	c'	.066	.044	1.490	-0.025	0.148
삶의 만족도 → 문화적 공감	b	.072	.037	1.959	0.000	0.143

주. * $p<.05$, ** $p<.01$, *** $p<.001$, LLCI: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I: 신뢰구간 내 상한값(95%)

$p<.01$). 또한 접촉하고 있는 외국친구의 출신 지역이 다양할수록 문화적 개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93$, $p < .001$).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식을 사용한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002, 상한값 .031으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접촉하고 있는 외국친구의 출신지역 다양성과 문화적 개방성의 관계를 삶의 만족도가 부분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외국친구의 출신지역 다양성과 문화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접촉하고 있는 외국친구의 지역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B = .153$, $p < .05$),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문화적 자기효능감 또한 높았다($B = .198$, $p < .001$). 또한 접촉하고 있는 외국친구의 출신지역이 다양할수록 문화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 = .277$, $p < .001$).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006, 상한값 .06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므로 삶의 만족도가 접촉하고 있는 외국친구의 출신지역 다양성과 문화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친구의 출신지역 다양성과 문화적 지식과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하고 있는 외국친구의 지역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B = .153$, $p < .05$),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문화적 지식 또한 높았다($B = .147$, $p < .001$). 또한 접촉하고 있는 외국친구의 출신지역이 다양할수록 문화적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 = .181$, $p < .001$).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결과 또한 95% 신뢰구간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어서 접촉하고 있는 외국친구의 출신지역 다양성과 문화적 지식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반면, 외국친구의 출신지역 다양성과 문화적 공감과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접촉다양성 → 문화적 공감($B = .066$, ns), 삶의 만족도 → 문화적 공감($B = .072$, ns)의 경로계수가 유의미하지 않아, 문화적 공감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접촉다양성과 다문화 역량의 관계에서 현실갈등인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접촉 다양성 → 문화적 개방성, 접촉 다양성 → 문화적 자기효능감, 접촉 다양성 → 문화적 지식, 접촉 다양성 → 문화적 공감의 경로계수는 각각 $.197$ ($p < .001$), $.294$ ($p < .001$), $.196$ ($p < .001$), $.064$ (ns)로 접촉 다양성에서 문화적 공감의 경로계수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실갈등인식 → 문화적 개방성, 현실갈등인식 → 문화적 자기효능감, 현실갈등인식 → 문화적 지식, 현실갈등인식 → 문화적 공감의 경로계수는 각각 $-.191$ ($p < .01$), $-.296$ ($p < .001$), $-.166$ ($p < .05$), $-.288$ ($p < .001$)으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접촉다양성과 현실갈등의 경로계수는 $-.044$ (ns)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현실갈등인식의 매개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논 의

세계화, 국제화의 추세에 맞춰 한국의 대학 또한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꾀하고 있고, 특히 외국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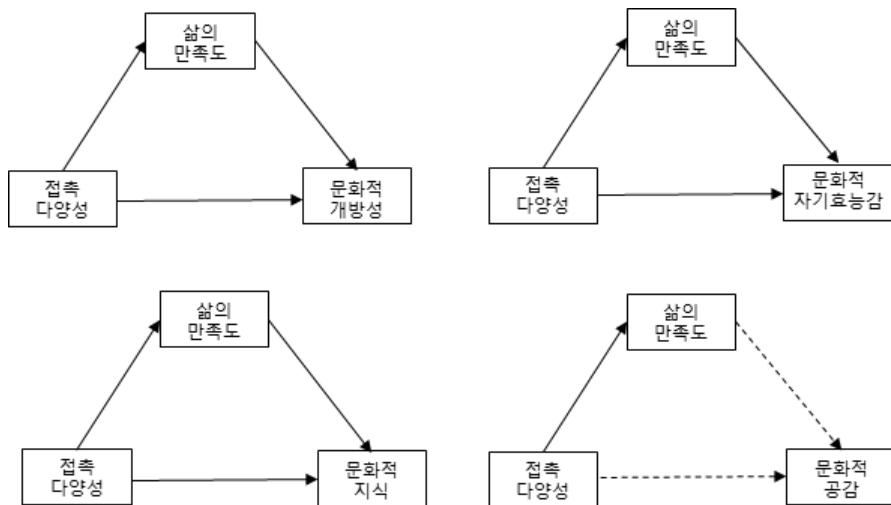


그림 1. 접촉다양성, 삶의 만족도, 문화적 역량의 각 하위요인에 대한 매개모형

주. 실선은 유의미한 경우, 점선은 유의도 수준 .05에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함.

에게 대학을 개방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대학의 국제지표나 대학재정이라는 행정적 이점 이외에, 상이한 문화를 가진 학생들 사이의 교류가 실질적으로 한국인 대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모두에 혜택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인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며 그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인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에 대한 선행연구가 외국인 유학생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연구가 주로 적응 및 정신건강을 위주로 이루어진 점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인 대학생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가지는 다문화 역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증진에 대한 선행이론이 접촉, 삶의 만족도, 현실적 갈등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가 탐색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대학생

의 외국인 유학생과의 접촉이 삶의 만족도와 현실갈등인식을 통하여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과의 접촉은 한국인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 대학생들이 상호작용하는 외국인 유학생 친구의 수가 많고 출신지역이 다양할수록 한국인 대학생들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외국인 유학생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더욱 효능감을 가지며, 타문화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더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고 우호적인 태도가 증진된다는 선행연구(김성훈, 이경화, 2017; Putman, 2007; Ward, Masgoret, & Gezentsvey, 2009)와 맥을 같

이 하는 것이다. Aaronson 등(2018)은 접촉을 통해 사람들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접촉을 통해 상대방의 삶을 목격하고 상대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며, 상대방의 문화에 대해 알고자 하는 동기가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국인 대학생과의 접촉경험이 한국인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대학생들이 접촉하고 서로의 삶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촉진해주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접촉의 개념을 상호작용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 뿐만 아니라 출신지역 다양성으로 구체화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그 내에서도 상호이질적인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한 문화권의 외국인 유학생과 접촉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다양한 문화권의 외국인 유학생과의 친교를 형성, 유지하는 것은 질적, 양적으로 다른 경험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대학생이 교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지역 다양성을 살펴봄으로써 접촉의 영향을 조금 더 정교하게 살펴보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다문화 역량의 네 가지 요인 중 문화적 개방성, 문화적 자기효능감, 문화적 지식이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 이탈 주민이 자신의 삶이 만족스러울수록 타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더욱 형성하게 된다고 언급한 양계민(2015)의 연구,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타집단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로 이어진다고 언급했던 구재선과 서은국(2016)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은 단지 개인의 정신건강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긍정적인 다문화 태도에 의미 있게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삶의 만족도는 접촉 다양성과 다문화 역량의 네 가지 요인 중 문화적 개방성, 문화적 자기효능감, 문화적 지식 사이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접촉 다양성이 직접적으로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삶의 만족도를 통해서 높은 다문화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redrickson(1998, 2001)의 확장 및 축적이론(broaden-and-build theory)에 의하면, 긍정 정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보다 많은 개인적 자원을 축적하게 되며 향후 높은 자존감이나 성공 경험, 학업 성취 등을 경험하게 된다. 확장 및 축적이론을 본 연구에 적용해 보면, 외국인 유학생과 다양한 접촉을 하는 한국인 대학생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더욱 만족하게 되고, 그 결과 축적된 풍부한 개인적 자원은 높은 다문화 역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 대학생의 행복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 한국인 대학생은 고등학교 시기와는 상이한 환경적, 심리적 변화와 요구를 직면하게 되면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배옥현, 홍상숙, 2008).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접촉 경험들은 이들의 삶의 만족도 및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타집단에 대한 이해 및 개방적인 태도가 증진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접촉 다양성과 문화적 공감의 관계에

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은 기대와 다른 결과이다. 이창환, 손영우, 임혜빈(2015)은 세계시민주의 의식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과 문화적인 유사성을 가졌는지에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공감적인 태도를 가지는 반면, 세계시민주의 의식이 낮은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과 유사할수록 더 공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세계시민주의 의식이 문화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일차적 노출에 의해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다른 집단에 대한 공감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접촉 다양성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이 가지는 독특한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는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일상의 다문화 역량 중 문화적 공감에 해당되는 문항들은 단지 공감적인 느낌을 측정하는 것이라기보다 외국인 유학생들만의 독특한 사정을 헤아리고, 필요하다면 외국인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기 위해 행동하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를 공감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적극적 태도는 접촉이나 자신의 삶의 만족도 외에 교육을 통한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한 영역으로 향후 연구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문제일 것이다.

셋째, 한국인 대학생들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자신의 이익을 해치고 경쟁해야 할 상대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한국인 대학생이 다른 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

질 가능성이 낮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자신감이 낮으며, 다른 문화에서 온 외국 학생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미국 학생들의 태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인해 자신의 기반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각하는 미국 학생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협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외국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연결된다고 보고하고 있다(Charles-Toussaint & Crowson, 2010; Spencer-Rodgers & McGovern, 2002). 한국의 대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분위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외국인 유학생의 존재는 경쟁자의 증가로 부정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현실갈등인식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및 낮은 다문화 역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넷째, 현실갈등인식은 접촉 다양성과 다문화 역량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았다. 특히 접촉 다양성과 현실갈등인식 사이의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김성훈과 이경화(2017)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생 간의 접촉이 많아질수록 한국인 대학생이 경험하는 불안감 및 위협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매개모형에서 접촉다양성과 현실갈등 인식의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관분석에서 현실갈등인식과 접촉수, 접촉 빈도 및 접촉다양성의 관계 모두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와의 일관되지 않은 결과는 접촉 및 현실갈등인식을 측정한 도구의 차이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이주민 및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캠퍼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쟁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한국인 대학생들이 학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경쟁 및 갈등상황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자기보고에 의한 것이었다. 특히 다문화 역량의 경우 설문 응답자의 답변이 실제 응답자의 다문화 역량 수준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는 실험이나 유사설계 등을 이용하여 현실 상황에서 응답자들의 다문화 역량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일상의 다문화 역량의 경우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하였으나, 수렴 타당도 및 변별 타당도 확인 과정이 부재했다는 한계가 있고, 연구의 응답 대상이 대구 지역의 대학생에 국한되어 다른 지역의 대학생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인 대학생의 접촉 경험과 다문화 역량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대학생이 외국인 유학생과의 접촉을 살펴봄에 있어, 친하게 지내는 외국인 유학생 수나 빈도 뿐 아니라 출신지역의 다양성에 초점을 두어 접촉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접촉의 질적인 측면을 포함했을 때 본 연구가 어떠한 결과를 도출했을지는 알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접촉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지역 다양성으로 빈도나 양과 다른 시각에서 접촉을 살펴보았으나, 접

촉의 질적인 측면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데 그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접촉 다양성, 삶의 만족도 및 현실갈등인식 및 한국인 대학생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다문화 역량의 관계를 단순매개모형으로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주요 변인들 사이에서 다양한 인지적, 정서적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으므로,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더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여 보다 정교화된 모형을 설정한다면, 다문화 역량에 대한 보호요인과 방해요인이 무엇인지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 대학의 세계화와 더불어 다문화 역량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연구가 상당수 이루어져 오고 있는 추세이지만, 한국인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다문화 교육은 그 구성원이 다양화되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타문화의 구성원과 더욱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 문화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를 연마해야 하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다(박순용, 2008; 정명희, 박외병, 2014; 꽈은희, 박재순, 2013; Howard-Hamilton et al., 2011). 본 연구의 결과는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생의 접촉을 통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외국인 유학생과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역량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발견함으로써, 다문화 역량 증진을 위한 기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인 대학생이 외국인 유학생을 경쟁자라는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상생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다문화 역량 증진을 위한 기틀이 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의의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대학생들의 다문화 역량을 함양하는 과정에 유용한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 고미숙 (2017). 일개 대학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공감 능력과의 관계: 문화적 인식을 중심으로. *다문화건강학회지*, 7(1), 1-11.
- 구자영, 서은국 (2007). 행복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믿음과 주관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1-19.
- 구재선, 서은국 (2016). 주관적 안녕감과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종단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2), 183-202.
- 김금미, 안상수 (2014). 남녀대학생의 동남아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계획된 행동이론의 수정모형에 기초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3), 315-338.
- 김미진, 정옥분 (2010).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개발과 타당화 연구. *인간발달연구*, 17(4), 69-88.
- 김성훈, 이경화 (2017). 외국인 유학생과의 집단 간 접촉이 국내 대학생의 글로벌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합적 갈등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3(4), 191-212.
- 김수아, 김태호 (2011).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 정체감 발달단계에 따른 차별지각과 차별대처방식. *다문화교육연구*, 4(1), 1-17.
- 김정덕, 이은경 (2014). 대학생의 다문화 경험에 따른 다문화 교류 인식 및 글로벌 역량과의 관계.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지*, 1, 67-94.
-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다문화 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51-89.
- 남순현 (2012). 한국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4), 949-980.
- 류승아 (2017). 소수집단에 대한 접촉경험, 위협감, 편견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4), 225-245.
- 박소진 (2013). 한국 대학과 중국인 유학생의 동상이몽: 서울과 지방 소재 사립대학 비교. *한국문화인류학*, 46(1), 191-234.
- 박순용 (2008). 대학에서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의 내용구성에 대한 고찰. *미래교육연구*, 21(1), 69-85.
- 박순희, 김선애 (2012). 초기 청소년의 문화적 경험과 다문화 인식: 개방성, 수용성, 존중성과의 관계: G광역시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7), 27-50.
- 박순희, 유지형 (2017).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4), 499-510.
- 박혜숙 (2016). 국내 중국인 유학생이 느끼는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과 한국인 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수준 비교. *인문사회과학연구*, 53, 41-63.
- 배옥현, 홍상욱 (2008). 대학생의 자아분화정도가 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7(1), 27-34.
- 양계민 (2009). 국내 소수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

- 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59-79.
- 양계민 (2010).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경제수준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안녕감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111-128.
- 양계민 (2015).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다문화집단에 대하여 지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3), 165-193.
- 양계민, 이우영 (2016). 북한이탈주민이 다문화집단에 대해 느끼는 현실갈등인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차별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0(1), 131-152.
- 이병식, 전민경 (2015). 대학생의 글로벌 역량 개발 가능성 탐색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3(3), 381-403.
- 이수정 (2014). 대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멘토링 경험이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효과. *다문화교육연구*, 12(7), 1-22.
- 이수정, 양계민 (2013). 북한이탈주민과의 지역사회 내 접촉수준에 따른 남한출신주민의 태도의 차이: 인천 논현동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7(1), 395-421.
- 이수진 (2009).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유대감과 자율성이 학교생활적응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문제를 매개로.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2), 229-248.
- 이창환, 손영우, 임혜빈 (2015). 문화유사 및 공감이 도움의향에 미치는 영향: 세계시민주의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감성과학*, 18(4), 46-46.
- 이택호, 이석영, 한윤선 (2016). 교우관계와 교사관계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1), 65-85.
- 임춘희 (2009).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문화에서의 스트레스와 적응.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93-112.
- 임희진, 김제희, 정소현, 정하영, 김현성 (2015). 캠퍼스 국제화에 대한 국내 학생들의 인식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6(1), 243-270.
- 전재은 (2013). 한국 대학생의 이문화 역량에 대한 이해와 행동반응. *아시아교육연구*, 14(3), 231-259.
- 정명희, 박외병 (2014). 대학생의 다문화교육경험이 사회적 거리감과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7(2), 81-105.
- 정진경, 양계민 (2005). 문화간 훈련의 이론과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185-215.
- 조선아, 유계숙 (2018). 서울시 남자대학생의 삶의 만족도가 여성혐오에 미치는 영향: 결혼의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30(1), 86-119.
- 채명정, 김진일, 이진희 (2015).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성 및 역량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1(3), 373-381.
- 픽은희, 박재순 (2013).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공감 능력,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43(5), 360-696.
- 하정희 (2008).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73-496.
- 한국교육개발원 (2018). 2018 고등교육기관 외

- 국인 유학생 현황. https://kess.kedi.re.kr/post/6672839?itemCode=04&xmenuId=m_02_04_03에서 2019, 3. 27 자료 얻음.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aronson, E., Wilson, T. D., Akert, R. M., & Sommers, S. R. (2018). *사회심리학(고재홍, 김민영, 박권생, 최윤경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Doubleday anchor books; New York.
- Bagci, S. C., Rutland, A., Kumashiro, M., Smith, P. K., & Blumberg, H. (2014). Are minority status children's cross-ethnic friendships beneficial in a multiethnic context?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2, 107-115.
- Bagci, S. C., Turnuklu, A., & Bekmezci, E. (2018). Cross-group friendship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dual pathway through social integration and empowerment.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7, 773-792.
- Charles-Toussaint, G. C., & Crowson, H. M. (2010). Prejudice against international students: The role of threat perceptions and authoritarian dispositions in U. S. students. *The Journal of Psychology: Interdisciplinary and Applied*, 144, 413-428.
- Cross, T. L. (2003). Culture as a resource for mental health.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9(4), 354-359.
- Diener, E., Emmons, R. S.,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xon, J., Durrheim, K., & Tredoux, C. (2005). Beyond the optimal contact strategy: A reality check for the contact hypothesis. *American Psychologist*, 60(7), 697-711.
- Forbes, H. D. (1997). *Ethnic conflict: Commerce, culture, and the contact hypothesis*, New Haven, CT, US: Yale University Press.
- Fredrickson, B. L. (1998). What good are positive emo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 300-319.
-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Journal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4, 218-226.
- Hewstone, M., Lolliot, S., Swart, H., Myers, E., Voci, A., Ramiah, A. A., & Cairns, D. (2014). Intergroup contact and intergroup conflict.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20(10), 39-53.
- Howard-Hamilton, M. F., Cuyjet, M. J., & Cooper, D. L. (2011). *Understanding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ral competence among college students*. In M. J. Cuyjet, M. F. Howard-Hamilton, & D. L. Cooper (Eds.), *Multiculturalism on campus: Theory, models, and practices for understanding diversity and creating inclusion* (pp. 11 - 18). Sterling, VA: Stylus.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Le, T. N., Lai, M. H., & Wallen, J. (2009). Multiculturalism and subjective happiness as

- mediated by cultural and relational variable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5(3), 303-313.
- Maddux, W. W., Leung, A. K., Chiu, C., & Galinsky, A. D. (2009). Toward a more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link between multicultural experience and creativity. *American Psychologist*, 64(2), 156-158.
- Mallinckrodt, B., Miles, J. R., Bhaskar, T., Chery, N., Choi, G., & Sung, M.-R. (2014). Development a comprehensive scale to assess college multicultural programm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1, 133-145.
- Mendoza-Denton, R. & Page-Gould, E. (2008). Can cross-group friendships influence minority students' well-being at historically white universities? *Psychological Science*, 19, 933-939.
- Mio, J. S., Barker-Hackett, L., & Tumambing, J. (2012). *Multicultural psychology: Understanding our diverse communities* (3r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Olzak, P. L., & Nagel, J. (1986). *Competitive ethnic relations*. New York: Academic Press.
- Pettigrew, T. F., & Tropp, L. R. (2006). A meta 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 751-783.
- Putman, R. D. (2007). Diversity and Commun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30, 137-174.
- Quinton, W. J. (2018). Unwelcome on campus? Predictors of prejudice against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Diversity in Higher Education*, 12(2), 156-169.
- Ridley, C. R., & Lingle, D. W. (1996). Cultural empathy in multicultural counseling: A multidimensional process model. In P. B. Pedersen & J. G. Draguns (Eds.), *Counseling across cultures* (4th ed., pp. 21-46). Thousand Oaks, CA: Sage.
- Saguy, T., Tausch, N., Dovidio, J. F., Pratto, F., & Singh, P. (2011). *Tension and harmony in intergroup relations*. In P. R. Shaver & M. Mikulincer (Eds.), Human aggression and violence: Causes, manifestations and consequences (Herzilya series 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pp. 333-34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herif, M., (1966). *In Common predicament: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conflict and cooperation*. Boston: Houston Mifflin.
- Sherif, M., Harvey, O., J., White, J., Hood, W., & Sherif, C. W. (1961). *Intergroup conflict and cooperation: The robber's cave experiment*. Norman: Institute of Intergroup Relations, University of Oklahoma.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pencer-Rodgers, J., & McGovern, T. (2002). Attitudes toward the culturally different: The role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barriers, affective responses, consensual stereotypes, and perceived threat.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6, 609 - 631.
- Sue, D. W., Arredondo, P., & McDavis, R. J. (1992).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and standards: A call to the profession.

-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0, 64-88.
- Turner, N. T., Hewstone, M., Voci, A., & Vonofakou, C. (2008). A test of the extended intergroup contact hypothesis: The mediating role of intergroup anxiety, perceived ingroup and outgroup norms, and inclusion of the outgroup in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4), 843-860.
- Veenhoven, R. (1988). The utility of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20(4), 333-354.
- Wang, Y. M., Davidson, M., Yakushko, O. F., Savoy, H. B., Tan, J. A., & Bleier, J. K. (2003). The scale of ethnocultural empathy: Development, validation, and reliabi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2), 221- 224.
- Ward, C., Masgoret, A. M., & Gezentsvey, M. (2009). Investigating attitudes toward international students: Program and policy implications for social integration and international education.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3, 79-102.
- Waugh, C. E., & Fredrickson, B. L. (2006). Nice to know you: Positive emotions, self - other overlap, and complex understanding in the formation of a new relationship.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2), 93-106.

논문 투고일 : 2019. 07. 11

1차 심사일 : 2019. 07. 15

게재 확정일 : 2019. 11. 26

Effects of Korean College Students' Contacts with International Students on Multicultural Competencies: Mediating Effects of Life Satisfaction and Realistic Conflict Perception

Gahee Choi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effects of Korean students' contacts with International students on Korean college students' multicultural competencies. This study also examined mediating effects of life satisfaction and realistic conflict perception between contacts with international students and multicultural competencies. For the purpose, 384 Korean college students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including contacts, life satisfaction, realistic conflicts perception toward international students, everyday multicultural competencies, and demographic informa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number of contacts predicts cultural self-efficacy and cultural knowledge, whereas contact diversity predicts cultural openness. Life Satisfaction predicts cultural openness, cultural self-efficacy, and cultural knowledge, and realistic conflicts perception predicts all subscales of everyday multicultural competencies scale other than cultural knowledge. Results also discovered that life satisfact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act diversity and multicultural competencies, but realistic conflict perception did not mediate between contact diversity and multicultural competencies. Based on the results, the suggestions to enhance college students' multicultural competenc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international students, contacts, multicultural competencies, life satisfaction, realistic conflict perception